

모래 만다라의 완성 그리고 무상 속으로...



📺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규모 사원 스님들이 7월 15일부터 1주일간 작업해 완성한 모래만다라(사진 위)를 21일 한강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 달라이 라마 동북아 사무소 한국지부 개소를 기념해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제작 전시된 모래만다라는 마지막 의식을 통해 무상(無常)의 도리와 부처님 가피가 세상 곳곳으로 가닿음을 보여준다. 한편 모래만다라 전시회는 다시한번 7월 25-29일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다.

사진=고영배 기자

선재마을의료회·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첫 활동

함께 힘모아 자비 실천합시다



선재마을의료회와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7월 17일 경기도 연천 장남면사무소에서 첫 봉사활동을 펼쳤다.

“오늘은 면사무소에서 무료의료봉사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가림시설이 늘어난 인삼밭이 펼쳐져있고 눈에서는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250가구 600여명이 모여 사는 조용한 마을 곳곳에 7월 17일 아침부터 사이렌 소리와 ‘무료 진료’를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진다.

주인들이 방송을 듣는 시각, 면사무소 2층에서는 무료진료를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장남면 주민들을 위해 이른 아침 자리를 열고 나온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주현)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단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연천군 장남면사무소 ‘무료진료’ 의료활동 통해 일체감 느껴

체의 ‘장남면 회동’은 5월 발족한 긴급재난구호봉사대의 첫 활동이기도 했다.
원당 1리에 살고 있는 유청기(65) 할머니가 몸 이곳저곳이 저러 증상은 아닐까, 걱정스런 마음에 진료소를 찾아왔다.
“할머니는 일을 조금 줄이셔야겠네요. 중풍 아닙니다. 너무 일을 하

셔서 생긴 병이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더 많이 하실테니 우선 몸부터 추스리세요.”
선재의료회에서 입담으로 유명한 이문호(50·성남 오렌지힐의원)한의사는 할머니의 손발에 짐을 놓으며 일을 쉬엄쉬엄 할 것을 권한다. 침술이 끝나고 부항을 뜨는 것은 복지재단 김용철(53·홍원포(42) 거사의 몫이다.

이렇게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선재의료회 의료진과 복지재단 봉사자들은 어느새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일체감’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계종 복지재단이 상설기구로 창립한 봉사 체계. 꾸준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집단이지만 ‘긴급 재난 구호’ 활동을 그저 재난 활동

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번 활동을 기획한 것도 긴급 상황이 필요한 순발력과 서로간의 믿음은 ‘봉사대’의 이름을 걸고 함께 활동해야 쌓아지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앞으로도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소속 의료·단체들과 사회복지재단 소속 봉사자들이 유대관계를 맺어 활동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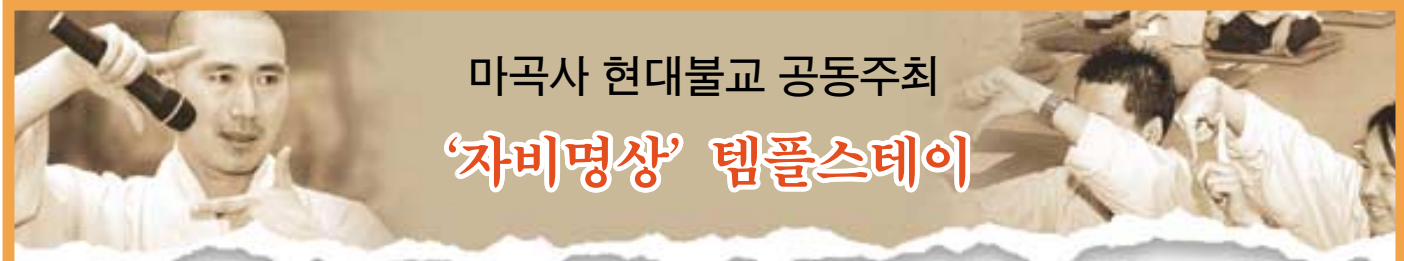
예산·서천경찰서 불교회 결성

충남 예산경찰서와 서천경찰서에 불자회가 생겼다.
자체적인 동호회 모임이었던 예산경찰서불교회(회장 최석기)는 7월 15일 청내 회의실에서 법회를 열고 신행모임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또 경찰분장들의 신행지도를 위해 수석사 재무국장 효성 스님과 대련사 주지 자명 스님을 경음으로 위촉했다.
앞서 7월 12일에는 서천경찰서불교회(회장 김구환)가 경음단 총남지 단장 장곡 스님 등 100여명의 경찰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서천경찰서불교회는 앞으로 경음실 개원, 월 1회 정기법회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서천경찰서불교회 창립은 목실한 불자인 김황재 서천경찰서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후배분자들에게 남겨준 선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황재 서천경찰서장은 창립 직후인 7월 15일 총경급 인사에서 정년 대기 발령을 받았다. **박봉영 기자**
고대·중대병원 불자회 첫 봉사
7월 7일 창립한 고려대의료원불자회(회장 김우주)가 7월 29-31일 첫 활동으로 순천 송광사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인다. 또 여기에는 불자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대대병원 불자회도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템플스테이와 겸해 열리는 이번

의료봉사에는 고대의료원 안암·구로·안산병원에서 근무하는 불자회원들과 중대병원원 불자회 창립준비위원, 고대의료원불자회 지도법사 지현 스님 등 50여명이 참가한다. 봉사단은 송광사 선방 수좌와 강연 학인 등 스님들을 대상으로 내과·외과·안과 등의 진료 활동을 펼친다. **박봉영 기자**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공동법회
대한불자수가사회와 해병대불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봉은사에서 공동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공동법회는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홍국 씨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이날 법회에 이어 11시 30분부터 불자수가 20여명은 봉은사 신도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마곡사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모든 것을 부처님 대하듯 하면 화(火)는 곧 화(和)가 됩니다

3차 일반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상생과 조화’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 ‘손에 손잡고’,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다른 한 사람은 부축을 하며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

📺 자비(慈悲), 중생을 그치지없이 넓은 사랑으로 감싸 안은 부처님의 마음.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을 닮고 싶고 또 그렇게 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늘어나는 적금통장과 내 집 마련이라는 속세에서의 기쁨을 잡고 ‘자비행’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 감사의 마음과 배부른 삶의 방법을 깨닫게 하기위해 마곡사와 현대불교가 마련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이 자리에 모인 각인각색의 참가자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행복한 마음 찾기’ 공부를 이루어 보겠다’는 뜻만은 모두 한결같다. 2차3일간 그들이 체험한 ‘자비명상’ 프로그램 가운데 집중과 깨우침이 있는 네 가지들을 들여다봤다.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린 공명조가 있었다.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찬 한쪽 머리는 배려심 많고 지혜로운 다른 머리에게 항상 불만이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독차지 하는 저 너석만 없애 버리면 나 혼자 사랑과 먹이를 독차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먹은 한쪽 머리는 다른 한쪽 머리에게 독약을 먹였다. 결국 자신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탐욕과 질투의 한쪽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마가 스님은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는 ‘공명조의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동안 상대방을 배려하며 믿고 따랐던 그 마음으로 부모형제와 부부, 자녀, 친구들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자비명상이다”고 말했다.

상생과 조화 깨닫게 하는 ‘손에 손잡고’

평가미가 지고 있는 태화산 마곡사. 수련복을 입은 10여명이 기우풍 기우풍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나? 자세히 보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다른 동료가 부축하며 징검다리를 건너게 해주고 있다. 무슨 영문일까? 바로 마곡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손에 손잡고’.

템플스테이의 진행을 맡은 마가 스님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눈을 감은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가 부축해 개울을 건너도록 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체험해 보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눈을 감은 사람이 부축하고 있는 동료를 믿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는 개울을 건널 수 없듯이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상생과 조화’를 깨닫게 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푸른하늘(템플스테이 참가자의 별칭)씨는 “눈을 감고 개울을 건너려니 발을 헛디뎠더니 물에 빠지면 어쩌나, 저 사람이 날 제대로 안내해 줄까라는 걱정과 의심이 앞섰지만 ‘그래 한 번 믿고 건너 보자’라고 생각하고 들에게 마가 스님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을 빚낸 ‘공명조 전설’로 상생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화 다스림 명상



화(火)를 화(和)로 바꾸어 생각해 보는 ‘화 다스림 명상’.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 일세.”

훈장 선생님께서 정명한 목소리로 마가 스님이 한 문장 한 문장 계승을 읊으면 참가자들도 숙연한 마음으로 따라한다. ‘화 다스림 명상’의 핵심은 화(火)를 화(和)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신의 마음작용을 공부하는 것.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구나’ ‘~겠지’ ‘감사합니다’의 순서로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행동하라고 주문한다. 또 ‘법당에 계신 부처님만이 부처가 아니다’며 ‘인연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화 다스림 명상’의 첫걸음이다”고 설명했다.

감로(참가자의 별칭)씨의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과 바람이 났으니 죽고 싶었구나. 죽고 싶었지만 자신들을 생각해 죽지 못했겠지.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날 이해해 주고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준 당신께 감사합니다.”
또 ‘등대’씨의 ‘열심히 공부해야 할 고3 딸이 TV를 보는 구나. 입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겠지. 수험 생활에 적응 못해서 목숨을 끊는 학생도 많다던데 잘 견뎌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등의 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응수하는 공부 방법을 참가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신과 타인의 존귀함을 깨닫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프로그램

“우주만물이 공 부처다”고 선언한 부처님의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위해 마련된 ‘천상천하 유아독존’ 프로그램. 참가자 한명 한명이 좌단에 앉으면 마가 스님과 묘운 스님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그를 향해 삼배를 하고 연꽃을 공양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됐다. 마가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처럼 존귀한 존재인 만큼 서로에게 삼배를 하는 시간을 가져 봄으로써 내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중요성도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마친 후 참가자 ‘말’ 씨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은 처음이다”며 눈물을 펄펄 쏟았다.
“고고” 씨는 “오- 해피데이”라며 유머러스하게 소감을 말하기도 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마가 스님은 “여러분들이 마곡사 템플스테이를 찾는 이유는 ‘날마다 좋은 날’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차 한 잔의 명상



묘운 스님이 참가자들에게 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담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노초(10여 분의 1)의 시대를 넘어 피코초(1조 분의 1)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고 남을 배려해 줄 시간은 더욱더 모자라기만 하다. ‘차 한 잔의 명상’은 차 맛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이다.

다시 말해 ‘차 한 잔 드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번뇌방상을 내려놓으세요’라는 이중적 의미의 불가의 다도를 통해 행복한 마음을 찾기 공부할 배워보는 것이다.
묘운 스님은 “차 맛을 느끼는 것과 사람의 맛을 느끼는 것도 같은 이치다”며 “부모형제, 부부,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할 때 그들의 소중한 자신과 자신의 존재 이유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041)841-6221